

현대 과학은 역사를 발전시킬까 파괴할까

역사와 과학

한현수의 지음



옛사람들이 부딪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주와 자연의 법칙이었다. 폭설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뿐 아니라 해와 달과 같은 천문, 기상과 같은 날씨의 고대 사람들에게 주요 관심사였다. 자연스럽게 신화와 종교가 발생했다.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이 등장하는데,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기저에 종교가 자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처럼 고대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이원화돼 있지 않았다. 정신과 자연이 본디 하나라는 관념이 지배했다.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이 자연철학이라고 한 바와 같이 과학과 철학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농경생활을 하면서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튀르키예와 시리아 중간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동물뼈는 다른 사실을 알려준다. 1만 2000년경으로 밝혀진 뼈는 당시 신전에 바쳐진 제물로 그동안 알려졌던 문명 탄생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었다.

즉 인류가 농경을 하면서 정착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위해 정착하다 보니 농사를 짓게 됐다는 논리다. 거대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예이다. 피라미드를 비롯해 도시 건축물, 모헨조다로의 도시 등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정신문화의 기초가 됐다는 주장이다.

인류의 1만 년 역사를 개괄한 책 '역사와 과학'은 역사와 과학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융합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한현수 숭실사이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은 미래 문명의 이기가 될지 흥기가 될지 단언할 수 없다. <인문서원 제공>

대 총장과 임종권 한국국제학연구원 원장이 집필했다. 저자들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본디 하나의 학문이었다는 논지 외에도 서양 중심 문명론은 역사적 허구라고도 강조한다. 서양역사가들은 동양 문명을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왔는데 과학문명이 유럽에서 일어났다는 자부심으로 인류문명사를 유럽에 맞춰 기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 근대 과학문명을 일으킨 데는 동양의 우수한 문명을 수용한 덕분이라는 게 저자들의 견해다. 15세기까지 중국은 자연과학과 기술면에서 유럽보다 발전한 상태였다. 자석나침반을 비롯해 항해술, 종이, 인쇄술, 도자기, 화학이 그러했는데, 이는 후일 유럽 문명을 일깨운 요인이 됐다.

그런데 왜 동양은 유럽보다 근대화가 늦었을까. 유럽은 토지가 척박해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면 약탈이나 정복과 같은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바다와 육지로 나아가야 했다. 그에 비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는

물자를 자급자족하기에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도 됐다. 역사적으로 종이와 인쇄술은 지배층이 독점했으며, 한자의 어려움은 지식 보급의 장애로 작용했다.

유럽은 르네상스와 맞물려 종교개혁,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력이 배가됐다. 신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 우주 섭리를 이해하는 노력이 기초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명나라는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 나머지 주자학을 모토로 쇠국정책을 시행한 탓에 과학기술의 진보를 막았다.

과학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전반기를 맞았다. 과학혁명을 토대로 한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이 진보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의 20세기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롯해 태양전지, 게놈해독, 빅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현대 과학은 문명의 이기가 될지 흥기가 될지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인문서원·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코끼리 M의 이야기=고요한 밤,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코끼리 M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신의 인생에 폴라리스 같은 존재가 나타나 안내자가 돼 주길 바란다. 그러던 중 "사람살려요!"하는 목소리를 듣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달팽이를 구한다. 달팽이는 코끼리 M에게 하루 여행을 제안한다. 그렇게 시작한 특별한 여정에서 코끼리 M은 다섯명의 스승을 만나고 스스로 13개 인생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호밀밭·2만 원>



▲창의성 기르기=21세기에서 중요한 가치로 손꼽히는 '창의성',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간다. 책은 우리가 선호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선택적 사고'로 인해 창의성이 자유롭게 힘을 펼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자 크리스 그리피스와 멜리나 코스티는 오랜 기간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창의성을 성장시킨 이들로써 자신들의 경험과 다양한 연구와 테스트를 기반으로 책을 통해 얘기한다. <이콘·1만7000원>

▲전기자동차가 다시 왔다?!=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기자동차는 언제나 해법으로 제시돼 왔다. 책은 초기 자동차의 등장과 경쟁, 자동차 산업의 성립, 자동차와 생산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접근한다. 기후변화의 대응 전략

으로 제시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자동차 산업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책을 통해 알아보자 <지성사·2만6000원>

▲돈의 패턴="60년 경험의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할까?" 월 스트리트 사무실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해 투자회사 '셰퍼 콜렌'의 설립자인 짐 콜렌의 저서. 저자는 판단을 흐리는 것을 견어내고 시장의 패턴을 책에 담았다. 모두 36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제별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시장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동양북스·1만8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유치원 처음 가는 날=오늘은 통통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 엄마 없이 낯선 곳에 있어야 하는 통통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오글 선생님은 시계 짝은 바늘이 1까지 오면 엄마가 오실거라고 달랜다. 통통이는 엄마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무사히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마치고 간식을 나눠먹고 울음까지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서도 통통이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한다. <길벗어린이·1만4000원>

간다. 어른들도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경험치도, 어휘력도 부족한 어린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 작가는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금 네 기분은 무슨 색깔이니?"라고 질문을 던진다. <책 읽는 곰·1만4000원>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내 기분은 호기심 가득한 초록, 오늘은 또 누굴 만나게 될까?" 설레는 노랑, 수줍은 연두, 신나는 주황, 일렁이는 빨강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

▲엄마는 카멜레온=아이가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은 때때로 욕심이 돼 아이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이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이겨해라, 저거 해라 말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야속하기만 하다. 책은 시시때때로 변하며 잔소리하는 엄마와 그에 맞서 귀여운 복수를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민서관·1만4000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48가지 질문과 답변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은유 지음



은유 작가의 글은 믿고 읽는다는 사람이 많다. 그의 글에서는 '진심'이 보여서일 터다. 인용구로 이루어진 책 '쓰기의 말들'을 읽다보면 그가 언급한 책을 메모하게 되고,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쓰고 싶어한다. 요즘 글쓰기 관련 책들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등 두 권의 글쓰기 책을 펴낸 은유 작가가 7년만에 세번째 글쓰기 책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계속 쓰려는 사람을 위한 48가지 이야기'를 펴냈다. '학인'이라 부르는 이들과 함께 글쓰기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는 르포 작가와 인터뷰

전문가로도 이름이 높다.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인터뷰집 '출판하는 마음' 등이 대표작이다.

스스로를 '사람과 책과 글쓰기가 주는 힘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하는 저자는 글을 쓰고 싶어하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48가지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깊은 통찰, 예시글, 인용글 등을 덧붙여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이런 일을 한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고, 나를 둘러싼 사람을 오래 들여다보도록 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삶과 한몸이다.

책에 등장하는 질문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법한 것들이다. '글쓰기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휘력과 글쓰기 테크닉이 부족해도 글을 쓸 수 있나요?', '글감을 어떻게 고르나요?', '글을 마무리 짓기가 항상 어려웠어' 등등.

책은 모두 4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 '흔사 쓰다가 주저한다면'에서는 부담감으로 섣뚱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글 쓰는 이유의 동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 '일단 써보고자 한다면'에서는 글감 고르기부터 되고, 제목 짓기까지 글 한편을 완성하는 방법을 다룬다. 3장 '섬세하게 쓰고 싶다면'에서는 타인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쓰지 않도록 옳은 언어를 고르고 표현하는 내용을, 4부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에서는 책과 시 이야기와 더불어 인터뷰 잘하는 법 등 작가는 은유의 노하우를 만날 수 있다.

또 하나의 글쓰기 책을 내는 데 망설였던 작가에게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책 '글쓰기의 최전선'은 '수학의 정석' 같이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고, '쓰기의 말들'은 사전처럼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책이고,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는 자습서 같은 책이다."

글쓰는 일은 온전히 개인의 일이지만, 은유 작가같은 길라잡이와 함께 길을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책에 언급된 작품들은 '또 다른 독서'의 여행이다. <김영사·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